

東亞日報 第四千四百十六號 附錄

新綴字便覽

東亞日報社



이 책은 新編子의 關한 法則을 說明한 것이 아니요 다만 新編 經字를 對照  
 함에 그치었다。每 語例마다 上下 二段으로 나누고 經、書를 각기 比較하여  
 으니、의례하 體를 버리고 新은 取할 것이다。갑자기 從來에 쓰든 것을 버리고  
 새것을 좃으려면 每양 잘못 쓰기 쉬울 念慮가 없지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한  
 드시 이에 深刻的 注意를 加하여야 할지며、만일 조금이라도 未詳한 點이 있거  
 든 차라리 在來에 쓰든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弊를 끼친다。



수수저기(誼) 弁弁저기  
 저고리(上衣) 저고리  
 종(服) 종  
 중(備) 중  
 천천이(徐徐히) 천천히  
 초(醋) 초  
 추추하다 추추하다  
 천하(天下) 천하

【備考】 但 말을 省略하여 略 때이는 「다, 지, 지, 지, 리」와만 限하여 쓸수 있음.  
 例 더디어(過하여)를 더디로  
 마시어(飲하여)를 마치로  
 하시었다를 하쳤다로  
 지어(負하여)를 지로  
 가지어(持하여)를 기치로  
 「다, 지, 지, 지, 리」와만 限하여 쓸수 있음.  
 버리어(抗하여)를 버리리  
 미치어(及하여)를 미치로  
 고치어(改하여)를 고치로  
 치어(打하여)를 치리  
 마치어(滿하여)를 마치로  
 버리어(抗하여)를 버리리

三, 키근 「근」 O음을 除한 外에 一般 聲소리(子音)와 合用함을 쓰지 아니함.  
 新 舊  
 거집(女) 거집  
 거시다(居) 거시다  
 화일(第一) 화일  
 세간(家什) 처간  
 백일(白髮) 백일  
 제사(祭祀) 제사  
 처(處) 처  
 케(居) 케  
 체면(體面) 체면  
 버림다(煩雜) 버림다

【備考】 「계」는 혹 一部에서 發音이 되는 곳도 잇으나 多數를 좃아 쓰지 않기로 한 것이며, 「피, 비」 등은 適當한 語例가 없으므로 例를 들지 아니함.

四, 「근」 「O」음을 除한 外에 一般 聲소리(子音)와 合用함을 쓰지 아니함.  
 新 舊  
 모기(此處) 모기  
 기은(氣) 기은  
 거미(蜘蛛) 거미  
 기미(既) 기미  
 거미(體) 거미  
 마미(馬) 마미  
 이미(伊) 이미

나비(蝶)

나비

빈집(空家)

빈집

시집(嫁)

시집

시르죽다(氣乏)시르죽다

시르(弱)시르(弱) 의는

시르나다(氣乏)의적나다

〔備考〕 「기」는 후

一部分에서發音이 되는 곳도 있으나多數의 口音을 發아 쓰지

않기로 한 것이며, 「린, 외」 등은 適當한 語例가 없으므로 例를 들지 아니함.

표, 두 音節 사이에 된소리(硬音)로 나는 말들은 그것에 각기 語源의 뜻이 없음을 限하여

는 다 같은 된소리(子音)로 連記함.

人바침이 「ㄱ」 「ㄴ」 「스」 「스」 「스」 「스」

소리와 合하는 것

新 舊

가깝다(近) 갖깝다

아깝다(可惜) 앓깝다

어깨(肩) 엇개

두껍다(厚) 두껍다

거꾸러지다(倒) 엇꾸러지다

바꾸다(換) 바꿨다

자꾸(數) 잦꾸

깨끗하다(潔) 썩끗하다

뜨겁다(熱) 늦겁다

치중병(補重兵)의중병

키(身長) 키

티(堤) 의

티(堤)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이(衣)의는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피우다(沸) 피우다



행다(行)	행고	행지	행으니	행어
행다(會)	행고	행자	행으니	행어
행다(期)	행고	행자	행으니	행어
행다(信)	행고	행지	행으니	행어
행다(受)	행고	행자	행으니	행어
행다(延)	행고	행지	행으니	행어
행다(伸)	행고	행지	행으니	행어
행다(處)	행고	행지	행으니	행어
행다(得)	행고	행지	행으니	행어

又 ㅅ

갓(獲)	갓고	갓을	갓이니	갓며
갓(乳)	갓고	갓을	갓이니	갓며
갓다(備)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다(揮)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다(惡)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다(低)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다(隨)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다(理)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다(結)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다(續)	갓고	갓지	갓으니	갓아

갓 나 나지 나를 나케 나르로 나르도  
 갓 취지 취를 취케 취르로 취르도

뜻다(發)	뜻고	뜻지	뜻으니	뜻어
뜻다(會)	뜻고	뜻자	뜻으니	뜻어
뜻다(期)	뜻고	뜻자	뜻으니	뜻어
뜻다(信)	뜻고	뜻지	뜻으니	뜻어
뜻다(受)	뜻고	뜻자	뜻으니	뜻어
뜻다(延)	뜻고	뜻지	뜻으니	뜻어
뜻다(伸)	뜻고	뜻지	뜻으니	뜻어
뜻다(處)	뜻고	뜻지	뜻으니	뜻어
뜻다(得)	뜻고	뜻지	뜻으니	뜻어



잇다(粘)	잇고	잇지	잇으니	잇어	잇다	잇고	잇지	잇으니	잇어
갇다(澗)	갇고	갇자	갇으니	갇아	갇다	갇고	갇지	갇으니	갇아
젓다(濕)	젓고	젓지	젓으니	젓어	젓다	젓고	젓지	젓으니	젓어
짚다(吠)	짚고	짚지	짚으니	짚어	짚다	짚고	짚지	짚으니	짚어
찢다(裂)	찢고	찢지	찢으니	찢어	찢다	찢고	찢지	찢으니	찢어
찾다(尋)	찾고	찾지	찾으니	찾아	찾다	찾고	찾지	찾으니	찾아
버릇다(屢)	버릇고	버릇지	버릇으니	버릇어	버릇다	버릇고	버릇지	버릇이니	버릇어
꾸짘다(叱)	꾸짘고	꾸짘지	꾸짘으니	꾸짘어	꾸짘다	꾸짘고	꾸짘지	꾸짘이니	꾸짘어
부르짖다(嗚)	부르짖고	부르짖지	부르짖으니	부르짖어	부르짖다	부르짖고	부르짖지	부르짖이니	부르짖어

乙 바림

갸(皮膚)갸이	갸은	갸에	갸으로	갸도	갸	갸치	갸흔	갸헤	갸츠로	갸도
꽃(花)꽃이	꽃은	꽃에	꽃으로	꽃도	꽃	꽃치	꽃흔	꽃헤	꽃츠로	꽃도
낯(面)낯이	낯은	낯에	낯으로	낯도	낯	낯치	낯흔	낯헤	낯츠로	낯도
맛(繡)맛이	맛은	맛에	맛으로	맛도	맛	맛치	맛흔	맛헤	맛츠로	맛도
돛(帆)돛이	돛은	돛에	돛으로	돛도	돛	돛치	돛흔	돛헤	돛츠로	돛도
명(機)명이	명은	명에	명으로	명도	명	명치	명흔	명헤	명츠로	명도
빛(光)빛이	빛은	빛에	빛으로	빛도	빛	빛치	빛흔	빛헤	빛츠로	빛도
숫(炭)숫이	숫은	숫에	숫으로	숫도	숫	숫치	숫흔	숫헤	숫츠로	숫도
옻(漆)옻이	옻은	옻에	옻으로	옻도	옻	옻치	옻흔	옻헤	옻츠로	옻도
뿔다(從)	뿔고	뿔지	뿔으니	뿔어	뿔다	뿔고	뿔지	뿔으니	뿔어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靑(靑)

靑 靑靑

靑(靑) 靑은 靑이 靑에 靑으로 靑도  
 靑(靑) 靑이 靑이 靑에 靑으로 靑도  
 靑(代靑) 靑은 靑이 靑에 靑으로 靑도

靑 靑靑

靑(靑) 靑이 靑지 靑으니 靑아  
 靑(靑) 靑이 靑지 靑으니 靑아

靑 靑靑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靑 靑靑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靑 靑靑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靑(靑) 靑이 靑지 靑이니 靑아







쌓이다(積) 가히나

깎이다(削) 다다

닦이다(拭) 닦기다

붙이다(粘) 붙이다

닫기다(閉) 다다

열기다(開) 다다

붓기다(拭) 다다

꽃기다(被塗) 다다

끊기다(斷)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낮추다(低) 낮추다

맞추다(合) 맞추다

싹추다(發) 싹추다

떨어지다(落) 떨어지다

묻어지다(埋) 묻어지다

붓어지다(澆) 부쳐지다

술어지다(糜) 쓰러지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놓아하나다(遺棄) 놓아하나다

잃어버리다(失) 잃어버리다

가리켜다(見) 가리켜다

자각하다(覺) 자각하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한글

이(禮)	그
이양기(禮儀)	그양기
정법(正法)	정법
정법(正法)	정법
아아(阿阿)	아아, 아해
중(中)	중회
가루(特)	가로
포아(普阿)	포아
포사(普沙)	포사
포루(普露)	포로리
가운데(中)	가운데
정법(正法)	정법
보아(普阿)	보아
자취(自取)	자취
스물(二十)	스물
거짓(假)	거짓
거짓말(假言)	거짓말
마지막(終)	마지막
오늘(今日)	오늘

한자(三行)

그	그
그양기	그양기
정법(正法)	정법(正法)
정법(正法)	정법(正法)
아아(阿阿)	아아, 아해
중(中)	중회
가루(特)	가로
포아(普阿)	포아
포사(普沙)	포사
포루(普露)	포로리
가운데(中)	가운데
정법(正法)	정법
보아(普阿)	보아
자취(自取)	자취
이기다(禮儀)	이기다
말이안(假言)	말이안
가르다(假言)	가르다
마지막(終)	마지막
오늘(今日)	오늘

한자(三行)

그	그
그양기	그양기
정법(正法)	정법(正法)
정법(正法)	정법(正法)
아아(阿阿)	아아, 아해
중(中)	중회
가루(特)	가로
포아(普阿)	포아
포사(普沙)	포사
포루(普露)	포로리
가운데(中)	가운데
정법(正法)	정법
보아(普阿)	보아
자취(自取)	자취
이기다(禮儀)	이기다
말이안(假言)	말이안
가르다(假言)	가르다
마지막(終)	마지막
오늘(今日)	오늘

目錄

序

第一章

第二章

第三章

第四章 (附錄)

第五章

第六章

第七章

第八章

第九章

第十章

第十一章

第十二章

第十三章

序	1	1	1
第一章	1	1	1
第二章	1	1	1
第三章	1	1	1
第四章 (附錄)	1	1	1
第五章	1	1	1
第六章	1	1	1
第七章	1	1	1
第八章	1	1	1
第九章	1	1	1
第十章	1	1	1
第十一章	1	1	1
第十二章	1	1	1
第十三章	1	1	1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十八、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東京(八日) 晴

하며 쓰기로 함.

아기가 밥을 먹소. (아이가 밥을 먹는다 란 말)

아기가 밥을 먹소? (아이가 밥을 먹느냐 란 말)

그 사람이 일을 부지런히 하오. (부지런히 한다 란 말)

그 사람이 일을 부지런히 하오? (부지런히 하느냐 란 말)

—도 그와 같은 때에 씀.

(二) 長音을 표할 때에 —는 쓰지 아니함. ㅏ 「모—든, 머—」 ㅑ 「꽃」 等。長音符號는 다

로이 정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略함。

(三) 漢字를 쓸 때에 「\*」 「<」 等은 조선 글에서는 도리어 不便하므로 쓰지 아니하

는 것이 좋으니, 筆記時에는 在來 朝鮮에서 쓰든 「<」 을 쓸지니, ㅏ 「ㅑ」 「ㅓ」 「ㅕ」

등은 「<」 으로 쓰고, 印刷時에는 「ㅏ」 「ㅑ」 「ㅓ」 「ㅕ」 등으로 쓸 것。

### 附 錄

항상 그릇 쓰기 쉬운 말들.

正 誤

가지다(持) 갖이다

갖은(具備한) 갖인

맞은(適合) 맞인

앉은(坐한) 앉인

같이(如하) 갖이

말의(末의) ㅁ의

밑의(底가) ㅎ의

밭의(田의) ㅑ의

술의(鼎의) ㅓ의

꽃의(花의) ㅕ의

날의(面의) ㅗ의

엿히다 (諗히다)	뜻이 다
물히다 (攄히여지다)	뜻이 다
시키다 (使하다)	싫이 다
치키다 (守하다)	집이 다
막히다 (防히여지다)	말이 다
럭히다 (被宜)	겉이 다
살피다 (察하다)	살이 다
슬프다 (悲하다)	슬으 다
아프다 (痛하다)	앓으 다
고프다 (飢하다)	굶으 다
나누다 (分)	남으 다
분어지다 (浬)	분어지 다
나아치 (能하다)	능아 치
고와치 (美하다)	공아 치
모아치 (聚하다)	몽아 치

공리다 (使遊)	공리 다
돌리다 (廻轉하다)	돌이 다
홍용하다 (偉大하다)	홍용하다
아니다 (非라)	안이다, 양이다
말기다 (任置하다)	말기 다
잡히다 (被執하다)	잡이 다
들어가다 (入하다)	드러가 다
일어나다 (起하다)	이리나 다
하지마는	하지만(은)
활이 (遊)	극의
활이 (生活)	버미
우(上)	송
(우회)	간
계(로)	피
계(의)	피의

신철자법대로 쓰려면

고칠 것이 얼마나 될가

자과<sup>기</sup> 남편이 갑작이<sup>자기</sup> 경련을 일으켜 잇는 사이, 중요한 의학을 대신 행하다가 열차에 치어 죽은 곳센 해임갑파 부부에게 집행이 나온 비극. — 막이 강의 선에 생겼다.

사실은 二十七일 오전 六시 五十分경에 강의선 선전(宣川)역에 드러오는 제 一三一 열차가 선전 정거장에 드러가는 철도 경찰을 통과하려할 지음에, 그 길목을 막은 과장이 김삼석(金三石)이가 바로 그 때 갑작이 경련을 일으키어 병을 작 못하게 되었으므로, 열차를 통과시킴 남편의 책임을 진신히 늦기고, 그 안 해 김귀녀(金貴女)(三三)가 못 램시음된으로 그대로 통과하라는 흰 과와 만일의 경우에 정거하라는 붉은 과를 불고서 나아가, 길을 막는 검술을 나르고 흰 과를 돌잇스나, 검술이 일본 나리오지 안히, 길 저편의 줄을 나리러 칠도물 가로

질러 가다가, 흰<sup>흰</sup> 괴를 보고서 사정<sup>알</sup>업시 달려오는 괴<sup>기</sup>차는 십<sup>十</sup>미<sup>米</sup>들 아<sup>앞</sup>페<sup>에</sup>서 횡<sup>橫</sup>단<sup>斷</sup>하  
 는 녀<sup>여</sup>자를 보고서 급<sup>급</sup>정<sup>정</sup>거<sup>거</sup>를 하<sup>하</sup>리 하<sup>하</sup>엇<sup>엇</sup>스<sup>스</sup>나, 췌<sup>췌</sup>는 이미 느<sup>느</sup>저<sup>저</sup>서 드<sup>드</sup>되<sup>되</sup>어 즉<sup>즉</sup>사<sup>사</sup>하  
 고 말<sup>말</sup>엇<sup>엇</sup>다. 이와 가<sup>가</sup>리<sup>리</sup> 병<sup>병</sup>중<sup>중</sup>의 남<sup>남</sup>편<sup>편</sup>을 간<sup>간</sup>호<sup>호</sup>하는 녀<sup>여</sup>가<sup>가</sup>의 그 작<sup>작</sup>무<sup>무</sup>를 대<sup>대</sup>신<sup>신</sup>하<sup>하</sup>다  
 가 순<sup>순</sup>식<sup>식</sup>한 조<sup>조</sup>선<sup>선</sup>의 녀<sup>여</sup>자<sup>자</sup>는 모<sup>모</sup>를<sup>를</sup>식<sup>식</sup>이 일<sup>일</sup>반<sup>반</sup> 사<sup>사</sup>회<sup>회</sup>에 큰 충<sup>충</sup>동<sup>동</sup>을 주<sup>주</sup>고 잇<sup>잇</sup>다.

—신분 기사의 一봉—

여<sup>여</sup>졸<sup>졸</sup> 말<sup>말</sup>스<sup>스</sup>。 이<sup>이</sup>번<sup>번</sup> 본<sup>본</sup>사<sup>사</sup>에<sup>에</sup>서 채<sup>채</sup>용<sup>용</sup>하<sup>하</sup>는 새 철<sup>철</sup>자<sup>자</sup>법<sup>법</sup>은 대<sup>대</sup>체<sup>체</sup>에 잇<sup>잇</sup>어<sup>어</sup>서  
 는 면<sup>면</sup>할<sup>할</sup>수<sup>수</sup> 없<sup>없</sup>는 것<sup>것</sup>임<sup>임</sup>은 물론<sup>물론</sup>이<sup>이</sup>오<sup>오</sup>나, 표<sup>표</sup>준<sup>준</sup>철<sup>철</sup>자<sup>자</sup>법<sup>법</sup>이 활<sup>활</sup>정<sup>정</sup> 되<sup>되</sup>기  
 를 기<sup>기</sup>다<sup>다</sup>려 다<sup>다</sup>소<sup>소</sup>의 번<sup>번</sup>정<sup>정</sup>은 잇<sup>잇</sup>을<sup>을</sup>느<sup>느</sup>지 모<sup>모</sup>릅<sup>릅</sup>니<sup>니</sup>다。